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31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2월 6일 (음력 10월 29일) 목요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호남 정치지형 재편되나

바른미래·평화당·정의당, 도입 촉구 농성 20대 총선결과 분석 '다당제' 전환 현실화 “거대 정당에 불리...민심 더 반영 장점도”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호남 정치지형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 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승자 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면 정치 지형은 호남은 다당제로 변경이 불가피해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민약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 때 A정당이 권역 정당 득표율 50%를 얻는다면 이 정당은 총 50석의 의석을 얻는다. 이때 A정당이 권역에서 45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낸다면 권역 단위 득표율을 통해 할당받은 50석 중 나머지 5석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때의 결과를 분석했다.

5일 중앙선거위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호남·제주에서 국민의당이 31석 가운데 23석을 차지했다.

당시 정당별 득표율을 적용해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졌다면 의원 수 300석을 기준으로, 호남·제주에서 민주당은 11석, 새누리당 3석, 국민의당 18석, 정의당 3석을 가져갔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구 의석 253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수를 늘릴 경우에는 민주당 15석, 새누리당 4석, 국민의당 23석, 정의당 3석을 나눠 갖는다.

전국적으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약진했을 것이라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정 정당의 독식 구조가 대세였던 호남은 다당제로의 전환이 현실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정당은 “한 걸음만 내딛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을 이룰 수 있다”면서 “집권여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참석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당이 기득권에 매달려 개혁을 거부하는 지금 정치개혁과 민생개혁 길을 열기 위해 대통령도 나서야 한다”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야 3당은 특히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연계시키고 나서 정치적 타협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정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면서 “민심을 지금보다 더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치권이 어떤 타협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논리의 비약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쟁점 사법 문제인 대통령의 체코행에 의문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를 지목해 “어느 정치인이 헛발질을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홍 전 대표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김평 일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삼촌이 대사로 있는 체코는 왜 갔을까요? 급유 목적으로 갔다는데 그런 정반대로 간 비행노선이 아닌가요?라며 지난번 보낸 글 상지에는 글만 있었을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이날 새벽 ‘메르카토르’도법이 가리와 발위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과 자구가 틀렸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어느 정치인이 헛발질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남들이 못보는 글속의 뉘네디니 아번에는 아무도 못보는 김평일을 했다”고 말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



신안 흑산·제주 신창리 해역서 중국도자기 550여 점 발굴

남송시대 제작 추정...동아시아 교역로에 흑산·제주가 기착지 확인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남 신안군 흑산면 인근 해역과 제주도 신창리 해역에서 진행된 수중문화재 조사에서 중국도자기 등 550여 점의 유물을 발굴했다고 5일 밝혔다. 제보자 신고로 조사한 흑산면 일대에서

는 중국의 고급 도자기 산지로 알려진 ‘저장성 룽취안(龍泉) 요(窯)’에서 만들어진 양질의 청자 접시 등 50여 점을 확인했다.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해역은 지난 1996년~1998년 3년간 세 차례에 걸쳐 제주대와 제주박물관에서 수중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일대에 유물이나 선체의 추가 매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했으며, ‘금옥민당(金玉民堂)’과 ‘하빈유범(河濱遺範)’의 글자를 밑바닥에 새긴 청자발 조각(편)을 포함한 50여 점의 유물을 추가 확인했다.

두 해역에서 확인한 유물들은 모두 중국도자기로 중국 남송시대에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중국 푸젠성(福建省)에서 제작된 도자기도 일부 포함됐지만 대부분 ‘저장성 룽취안 요’에서 제작한 청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도자기 유물들은 고려와 남송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해상 교역로에 흑산도와 제주도가 중요한 기착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흑산도 바닷길은 중국 송나라 사신인 서경(徐兢)이 쓴 ‘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송나라에서 고려로 오는 항로 중 하나로도 기록돼 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 한치윤이 쓴 ‘해동역사(海東雜記)’에는 탐라(제주도)의 옛 지명에서 바닷길로 가면 송나라와 일본을 쉽게 갈 수 있다는 기록이 전해오고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2019년 내로 제주 신창리 해역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흑산도와 제주도 항로를 포함한 중세 해상교역로 복원 연구를 위한 수중발굴조사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남규 기자

KFS 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Fb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매매·임대차·매입비축·임대수탁
·매매·임대를 통한 영농규모 확대 지원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임대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 받아 임대
청년창업농, 2030세대, 귀농인 농지지원
·청년창업농의 빠른 영농정착을 위해 우선 지원
·생애 첫 농지구입자 저리 지원, 5~10년 장기임대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 및 환매 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중도인출 가능)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영농 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 임대 시 매월 보조금을 지급(75세까지)

독특한 농지관리 전문가 농지은행 | 든든한 노후생활 도우미 농지연금 | 문의 전화 1577-7770